

전문가풀 회의결과 보고서

I. 개 요

1. 일시 : 2012. 7. 3. (16:00~18:00)
2. 장소 : KIEP 7층 회의실
3. 발표자 : 1. Gotov Dugerjav 박사(Managing Director, TERA Internatinoal Group)
2. 강재홍 박사(몽골도로교통건설도시개발부 KOICA 자문역, 전 한국교통연구원 원장)

4. 참석자

김홍진(순천향대학교, 교수)
이평래(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교수)
박환영(중앙대학교, 교수)
정행득(광운대학교, 교수)
이성규(단국대학교, 교수)
강명구(산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박원길(고려대학교, 교수, 한국몽골학회 회장)
김기선(단국대학교, 연구교수)
Batbold Tugso(몽골 철도위원회 회장)
조영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윤성학(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주진홍(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김지연(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민지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강부균(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임민경(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황정민(대외경제정책연구원, 청년인턴)
이시영(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

4. 제 목

- Gotov Dugerjav 박사: Enhancement of NEA Economic Cooperation through Transport Development
- 강재홍 박사: 몽골의 교통물류인프라 사업

II. 주요 논의 사항

1) 발제내용

- ☐ 동북아시아는 발전 잠재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중국과 북한의 노동력, 한국과 일본의 신기술, 몽골의 자원을 활용하면 상당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지역임.
- ☐ 몽골의 동북아시아 지역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가 대외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오고 있음.
 - 주요 전략은 지역 안보 강화와 다자간 협력 체제를 구상하는 것임.
 - 러시아와 중국과의 외교 균형을 유지함.
 - 제3의 국가, 미국, 일본 등과의 국가들과 협력을 확대시킴.
 - 핵무기 확산 금지, 이동수단의 원활화 등을 주요 전략으로 함.
- ☐ 몽골의 교역은 대부분이 동북아시아 국가들에 치우쳐 있으며 2011년에는 수출의 93%, 수입의 44%가 동북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음.
 - 몽골의 대 한국 교역은 2011년 기준 수입 3억 4,980만 달러, 수출

6,062만 달러가 이루어졌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물리브텐과 같은 기타금속광물이 60.6%, 유연탄 30.3%, 형석 등의 기타비금속광물 4.6%, 편직제의류(스웨터) 1.2%, 양가죽 1.2% 등 워자재 및 노동 집약적 제조업 제품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화물자동차 14%, 승용차 13.9%, 건설중장비 9.7%, 윤활유 5.7%, 항공기부품 3.2% 등임.

- 몽골내 한국기업의 투자는 1994년부터 2011년 말까지 누적투자금액 기준으로 광업부문이 6,305만 달러(258건)로 가장 많고, 전체 투자중 25.8%를 차지하고 있음. 다음은 도소매업이 4,234만 달러(255건) 17.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2,484만 달러(51건) 10.2%를 차지하고 있음.

□ 몽골의 GDP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영향으로 2009년 -1.6%를 기록한 바 있으나 2010년 6.4%로 회복되었고 2011년에는 17.3%의 고도 성장을 달성하였음.

- 이는 석탄, 구리, 금광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하였기 때문임.

- 2010년과 2011년 사이에 FDI가 급증하였고, 공공투자부분도 증가하였음.

□ 몽골의 교통인프라 중 철도, 도로, 항공 중 화물은 주로 철도, 여객은 주로 도로를 통해 이동되고 있음.

- 도로중 GTI 도로는 울란바토르-운더르항-초이발산-숨베르-너무르까지 연결되어 있으며 밀레니엄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짐.

- 안탄블락-다르항-울란바토르-초이르-샤인산드-자밍우드간 연결도로는 지금 건설중이며 2013년에 완공예정임.

- 철도 는 수흐바타르-다르항-울란바타르-샤인산드-자밍우드 라인

이 이미 존재하고, 타반톨고이에서 연결되어 준바양-샤인샨드-바룬우르트-쿠트-초이발산-에린자브로 연결되는 철도노선이 현재 공사중이며 2년내로 완공예정임.

- GTI 철도노선은 우카 쿠닥-쿤바얀-샤인샨드-쿠트-탄삭불락-숨베르 라인으로 연결될 예정으로, 총 길이는 338km임.

□ 몽골 정부는 주요 광산과 연결되는 도로, 철도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프로젝트 3개는 타반톨고 석탄광, 나린수카이트 석탄광, 오유틀고이 구리광과 연결되어 있음.

- 타반톨고이 석탄광 인프라 연결 프로젝트는 6,770만 톤의 광물제품을 운반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완공할 계획임.

- 나린수카이트 석탄광 프로젝트는 2020년까지 3,050만 톤을 운반할 수 있도록 부설을 계획하고 있음.

- 오유틀고이 구리광 프로젝트는 21만 톤의 구리를 운반가능하도록 인프라가 구축될 것임.

□ 몽골의 교통인프라 건설을 통한 중장기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음.

- 2015년까지 여객 25.2% 증가, 화물 10.7% 증가.

- 2020년까지 여객 23.5% 증가, 화물 9.45% 증가.

- 2025년까지 여객 19.9% 증가, 화물 8.05% 증가.

□ 교통인프라 확대를 통해 그동안 접근이 어렵고 교류가 어려웠던 지역을 연결함으로써 빠른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2) 토론 내용

□ 몽골의 광물자원을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통하여 운반하는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음.

－ 러시아로 운반하는 것의 문제점은 관세율과 세금 때문임. 이와 비교할 때 중국은 상대적으로 싼 비용으로 운반되고 있음. 장거리 운송의 경우 러시아를 통해 운송하여 장기적으로 러시아와의 운송 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철도부설을 통한 광산개발 단계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러시아와의 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향후 몽골에도 중국 이외의 국가로의 수출루트를 확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루트를 개척할 수 있음.

□ 6월 28일 총선 결과 야당이 제 1당이 되었음. 과반수는 안되었지만 정권이 교체되었음을 의미.

－ 향후 광물자원 관련 개발 정책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책에 맞게 투자진출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국가가 주도하는 프로젝트(인프라, 도시개발 마스터플랜, 광산 개발 등)에 관심을 기울이고 법제도 및 외국인투자정책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몽골 투자에 유망한 분야는 항공 산업과 관광 산업임.

－ 현재 몽골과 한국 사이에는 대한항공과 몽골항공이 운항하고 있음.

－ 이 두 업체는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항공료가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 복수 항공사를 통해 양국간 취항노선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음.

- 현재 신공항을 건설하고 있어 향후 항공운항수는 전세계를 대상으로 증대될 것이며 화물 및 인적교류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몽골에 대한 항공산업 투자 증대가 중요한 이유는 몽골의 관광산업이 매우 유망하기 때문임.
- 몽골의 자연환경이 빼어나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많고 아직 미개발 지역이 높아 잠재가능성이 매우 높음. 우리나라가 관광분야에 투자할 때 관광공사 같은 기업이 들어가서 지역별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음. 관련 시설, 설비 등을 투자할 수도 있음.
- 현재 한국기업이 몽골내 호텔 건설 수주를 많이 하고 있어 면세점이나 카지노 등을 개발하여 진출하는 방안도 있음.
- 관광과 관련된 서비스업의 발전도 유망함.
- 관광은 평화로 가는 passport라는 말이 있듯이 관광 협력을 통해서 인적, 문화교류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동 분야에 대한 협력을 증대시킬 방안을 마련할 중요성은 매우 높음.

□ 한중일 FTA에 몽골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한중일 지역은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지만 지역간 협력이 매우 어려운 지역으로도 평가되고 있음. 세계에서 유일하게 FTA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임.
- 현재 한중일 FTA 협상이 논의중이기는 하지만 3국보다는 2국간 협상에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장기적으로 한중일 FTA가 체결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와 협력을 급속도로 성장 및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여기에 몽골까지 함께 FTA가 이루어진다면 더욱더 크고 활발한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음.
 - 몽골은 특히 이들 국가들과 경제 부문이 상호보완적이며 자원이 풍부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교통인프라, ODA, 관광 등과 더불어 중요한 협력 분야는 역사문화 프로젝트임.
- 몽골과는 민족적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할 여지가 많이 있음.
 - 몽골내 현재 반한감정이나 한국을 싫어하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구소련 독립이후 한국이 몽골에 진출하면서 몽골은 한국을 친형제국처럼 생각하였으나 2008년 몽골의 IMF 당시 한국이 도와주지 못한 이유도 있음.
 - 반면에 중국은 차관지원 및 경제개발 등을 통해 몽골의 경제분야에 상당히 진출하게 되었음.
 - 러시아는 구소련 시절 몽골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많은 부채를 탕감해 주기도 하였음.
 - 이 가운데에서 일본은 막대한 ODA 지원을 통해 몽골에 들어오고 있으며, 미국과 캐나다 같은 서방 세력도 몽골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 우리나라가 새롭게 몽골과의 관계 확대 및 신뢰 구축을 위해서 역사와 문화 부문에 대한 상호 공감대 형성을 바탕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출하는 것은 현재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

각됨.

- 특히 동몽골 지역에 역사문화 협력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며, 동몽골의 농업과 석유자원 개발과 같은 경제 분야에 대한 협력 가능성도 매우 높음.
- 몽골에서 이어지는 교통인프라 확대와 신공항건설 등은 몽골의 대외경제협력 증대를 가져와 한국의 투자기회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임. 향후 몽골과의 공동연구와 한국내 몽골 연구를 확대하여 정부, 민간이 합심하여 상호교류, 협력할 필요가 있음.